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너의 울음을 멎게 할 순 없지만 우리 같이 흐르자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매화는 본래 환히 맑기에, 달에 비치니, 물빛인 듯하네.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 주어,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뼈속에 스며드네. 이 꽃을 대하면 마음을 씻어 주니 ㉠오늘 밤은 한 점의 양금도 없네.	梅花本瑩然 映月疑成水 霜雪助素艷 清寒徹人髓 對此洗靈臺 今宵無點滓
---	--

- 이이, 「매초명월(梅梢明月)」

(나)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잡념과 머리카락이 희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A]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사람들은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혹은 산을 깎아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배꽃, 찔레꽃, 박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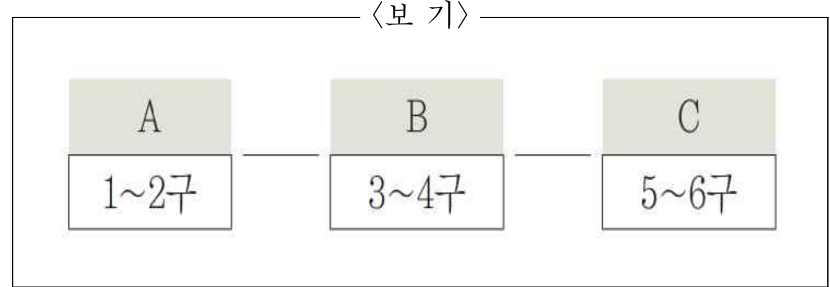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가지, 추위 속으로.

㉣때까치,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 물

- 신대철, 「추운 산」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 시어와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2. (가)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물과 자연물이 서로 어우러져 형성된 외부 정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② A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B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와 C에는 화자가 대상을 마주하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④ B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C에서는 거리감이 부각되고 있다.
- ⑤ C에서는 자연물에 반응하는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눈’은 차가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눈의 시련을 이겨 낸 생명체의 생명력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깨끗함의 속성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 깨끗함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표상한다. 또한 세차게 내리는 ‘눈’의 매서움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정진의 치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가)의 ‘눈’은 매화에 ‘흰 자태를 더해’ 준다는 점에서 매화가 가진 깨끗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② (가)의 ‘눈’의 차가움의 속성에 주목할 때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는 추위로 상징되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내적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③ (나)에서 화자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눈사람’이 되려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④ (나)에서 화자는 ‘깊은 산’을 자신이 지향하는 고결한 삶을 위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⑤ (나)의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에서 눈발 날리는 ‘추위’는 자기 정진을 위해 선택한 치열한 외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4. ㉠과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애상감을 표출하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상실감을 표출하는 시간이다.
- ② ㉠은 세속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시간이고, ㉡는 세속에 대한 욕망이 표출하는 시간이다.
- ③ ㉠은 일상적 삶의 어려움을 떠올리는 시간이고, ㉡는 일상적 삶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시간이다.
- ④ ㉠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고, ㉡는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가 내면의 정화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내면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다.

5. (나)의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들이 제시되고 있다.
- ③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들이 제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긍정과 포용의 마음으로 감싸 주려는 대상들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 ⑤ 타인과의 소통 실패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하며 후회하는 존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세속적 삶 속에서 사람들이 잊고 사는 존재들이다.
- ② ㉡은 ㉠과 달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들을 상징한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삶을 표상하는 자연물이다.
- ④ ㉠과 ㉡은 모두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외면하는 존재들이다.
- ⑤ ㉠과 ㉡은 모두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기대와 희망을 보여 주는 자연물이다.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45년 **알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여러 현안에 전격 합의했다. 그들은 미국, 영국, 소련에 더해 프랑스가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독일 분할 점령의 목적은 독일을 비무장화,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제 연합의 창설과 표결 방식도 합의되었다. 3국 정상들은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로써 1939년 소련의 폴란드 동부 점령 이후의 국경을 의미하는 ‘커즌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되었고,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 정부, 즉 루블린 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친소계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티토와 비공산주의 계열 망명 정부가 함께 참

여하는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소련은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다. 대신 서유럽 및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알타 회담 직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협정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약속받았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동반자로 삼음으로써 그가 알타에서 목적했던 바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소련의 도움을 약속받은 것은 루스벨트가 알타에서 이루어 낸 성과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 열도 점령 과정에서 자국군의 커다란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의 존재는 미국의 걱정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일본전 참전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루스벨트는 자신의 전후 계획의 핵심이었던 국제 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정치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새로운 국제기구, 즉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국제 연맹과는 달리 전쟁 방지를 위한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국제 연합을 창설할 계획이었다. 루스벨트는 국제 연합을 통해 약소국들이 특정 국가의 세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고,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 체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구식민지 지역에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 즉 자본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루스벨트 입장에서 알타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서유럽을 자유 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는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이제 막 파시즘 지배에서 벗어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대(對)파시즘 저항의 중심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크나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목인을 얻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소련은 동유럽 완충 지대의 확보와 독일 무력화라는 자국의 최우선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알타에서 스탈린은 미국이 희망한 ㉡신질서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탈린은 루스벨트로부터 소련이 그간 주장해 왔던, 국제 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을 받아 낼 수 있었다. 이로써 소련은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제 연합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에 거부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1930년대 말 국제 연맹에서 축출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소련은 이제 비토권 확보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알타 회담 결과, 영국은 국제 질서의 조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여러 문제에서 처칠을 주변화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루스벨트는 영국을 아시

아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이는 영국이 일본과의 직접 교전국이었으며,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권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입장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였다. 루스벨트는 한반도 신탁 통치 참여국에서도 영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일본전 참전을 약속한 소련만을 동반자로 삼았다. 스탈린 역시 미국의 국제 연합 창설 방안에 적극 동의하는 과정에서 구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영국의 집착에 타격을 가했다. 처칠은 국제 연합의 창설이 홍콩 및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 등 영국 제국의 이권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세계 지배욕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렸다. 영국이 희미하게나마 붙잡고 싶어 했던 제국주의 질서는 이제 미국이 주창하고 소련이 화답한 국제 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알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국제 연합 계획이 관철된 것과 이에 소련이 적극적으로 찬동한 것,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미국이 동유럽을 소련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관상 알타 회담은 3국 정상의 합의하에 협력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회담에서 분명한 패자는 영국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을 주변으로 밀어내면서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탄생시켰다.

*비토(veto)권: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국제기구 내에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타협해 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약소국들의 이권이 배제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미소 양 진영 간의 이념 갈등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과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세력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8. 알타 회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정부 구성에 친소 세력이 참여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 ②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소련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 측의 기대가 반영되었다.
- ③ 전후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에 의해 점령되어 무장이 해제되고 분단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④ 실제적 권한을 지닌 국제기구로서 국제 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표결 방식에서 영국에 대한 소련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 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단축하기 위해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고, 소련은 이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9.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941년 6월 22일 독일 군대가 소련 국경을 넘을 때 그 규모는 전체 나치 병력의 80%에 해당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럽 대륙 전장에서 사실상 홀로 나치 군대를 대적한 교전 당사국이었다. 소련의 인적 피해도 심각했다. 전쟁 기간 중 영국군과 미군의 전사자가 각각 40만 명 정도였던 데 비해, 소련군 소속 전사자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렀다. 민간인 피해에서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났다. 미국은 민간인 사망자가 사실상 없었고 영국은 그 수가 6,500명가량이었던 데 비해, 소련은 1,500만 명 이상이었다. 한 역사가의 표현을 빌리면,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소련 사람들은 '시간당 1,000명'꼴로 죽었던 것이다.

- ①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국과 독일 사이에 완충 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②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자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③ 서유럽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는 것에 대항하여 동유럽을 통해 서유럽에 공산주의 세력을 진출시키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④ 독일 군대와 사실상 직접 교전한 당사국임에도 전후의 국제 질서 개편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1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스벨트는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에서 영국을 제외하려 했다.
- ② 루스벨트는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자신이 구상한 자유 무역 체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려 했다.
- ③ 루스벨트는 아시아 문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면서 스탈린과의 비밀 협정을 통해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정했다.
- ④ 스탈린은 영국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라고 조롱했다.
- ⑤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홍콩 및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1. 문맥상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진 국제 질서
- ② 강대국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줄이는 국제 질서
- ③ 미국 자본의 수출 대상지가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역에까지 확대되는 국제 무역 질서
- ④ 영국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해체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국 중심의 국제 질서
- ⑤ 동유럽을 소련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련을 참여시킨 국제 연합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국제 평화 질서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하생은 집안이 한미(寒微)하고* 조실 부모한 처지였으나 재주가 뛰어나 태학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등용되지 못해 불우한 나날을 보내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을 듣고 도성 남문 밖 숲속의 인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워 있다가 문득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이 집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

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부친의 지난 죄로 인해 죽은 다섯 아들은 이미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절하고 물러 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金尺)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뚝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중략〉

“너는 어떤 사람이며, 이 물건은 어디서 얻었느냐?”

“저는 태학의 학생입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너는 입으로는 시(詩)와 예(禮)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나?”

하생은 웃으며 말했다.

“우선 결박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장차 제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시중은 즉시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려 하생의 결박을 풀고 섬돌 위로 올라오게 했다. 마침내 하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찬찬히 말해 주었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녀 종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물어 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의심의 여지 없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삼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해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 질 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의 유생(儒生)으로 오래전에 작고 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는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 다 해도 문제 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니 후하게 주어 ㉡보답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생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등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
 [A] 가
 팔뚝 위의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의 좋았던 만남 지금 외려 부끄럽네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부모가 딸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병이 난 이유를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부모님의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입니다. 남의 일인 양 소원하게 대할 수 없어 말씀드리려는 건데, 지나치게 따지는 일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부모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아라. 숨길 것이 무어 있겠느냐?”

- 신광한, 「하생기우전」

***한미하고**: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하고.

1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중의 아들들은 시중의 잘못에 대한 옥황상제의 처분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 ② 하생은 여인의 부탁을 듣지 않아 결박당한 채 끌려오게 되었다.
- ③ 남녀 종들은 하생을 질책하는 시중의 심정에 공감하여 탄식했다.
- ④ 시중의 부인은 딸의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꺼려서 울음을 터뜨렸다.
- ⑤ 여인은 하생에 대한 연모로 인해 깨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하생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6세기의 전기 소설(傳奇小說)인 「하생기우전」은 부활, 혼사 장애 등의 화소(話素)를 천상계의 권능자인 옥황상제와 현실계에서 욕구를 실현하려는 하생, 여인 등과 연결하여 서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 소설은 이승을 떠난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현실계 속에 비현실적 이계(異界)가 공존하고, 현실계와 비현실적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이 나타나며,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생기우전」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반적인 전기 소설과는 달리, 이승을 떠난 존재였던 여자 주인공이 부활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남자 주인공이 그녀와 혼인한 후 임신출세를 이루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색다른 느낌을 준다.

- ① 하생이 여인에게 받은 금척은 현실계와 비현실적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시중이 하생의 한미한 가문과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를 우려한 것이 혼사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군.
- ③ 하생과 여인이 만나 인연을 맺는 집은 생사가 다른 인물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비현실적 이계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여인은 천상계의 권능자에게 들은 정보를 통해 전생부터 이어진 하생과의 사랑을 현실에서 완성하려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시중이 하생의 말을 듣고 무덤을 팠을 때 여인의 심장에 온기가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반적인 전기 소설과는 다른 부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을 받는 대상은 동일한 인물이다.
- ② ㉠과 ㉡은 모두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 ③ ㉠과 달리 ㉡은 혼인을 대체하는 보상을 의미한다.
- ④ ㉠과 달리 ㉡은 받는 대상이 바라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⑤ ㉡과 달리 ㉠은 받는 대상의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럽혀질 건 없나니’는 하생이 자신을 모욕하는 시중에게 보복을 다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는 하생이 다시 살아나 집으로 돌아온 여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는 하생이 여인에 대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좋았던 만남’은 하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지금 외려 부끄럽네’는 하생이 여인과의 인연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형질 전환을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식하여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GMO)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은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하여 복제하는 단계이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를 가진 식물로부터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를 분리하면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추출되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 효소이다. 제한 효소는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식물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이다.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운반하는 재조합 운반체로는 토양성 세균인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이용된다.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 일부인 T-DNA를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하여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숙주 식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니고 있는 작은 DNA로, 선형의 이중 나선 구조를 지닌 식물 세포의 DNA와 달리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기 위해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절단하고, 외래 유용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 준다. 그리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

세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로 이식하는 단계로서,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엽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과 시토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이식된 유전자들이 식물 세포에서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식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 준다. 또한 옥토

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줄기 혹은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드는데, 이것이 근두암종이다.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방법은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한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이병성 유전자이거나 원하지 않는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 이러한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해 주면 그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 후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이다.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식물 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 후 필요한 영양분과 식물 호르몬을 함유한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하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식물 조직 배양이라 하고,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제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생물 검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농업적인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상품화를 위한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되게 된다.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종자 증식에 들어간다.

*전사: DNA의 유전 정보가 mRNA로 옮겨지는 과정. 전사된 mRNA에 의해 세포질에서 해당 유전 정보를 지닌 단백질이 합성됨.

16.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종 기술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식물 조직을 배양한 이후 유전자가 변형되어 형질이 전환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유전자 변형 작물의 DNA를 이용하여 특정 미생물의 형질 전환 방법이 개발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식물이 지닌 유전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 기술을 식물의 형질 전환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⑤ 교잡을 이용한 품종 육종법과 유전자 변형을 통한 육종법을 비교하여 유전자 변형 작물이 지닌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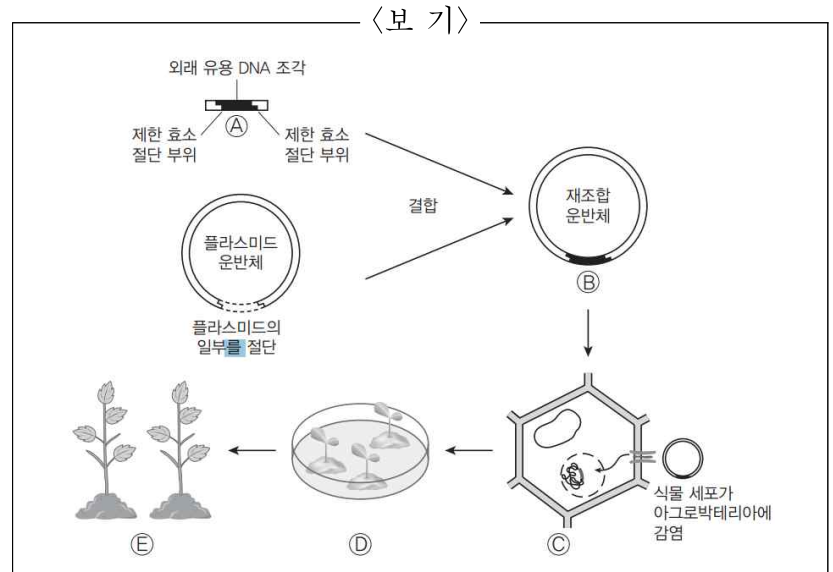
1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형성을 지닌 식물 체세포 하나로부터 완전한 식물체가 재분화될 수 있다.
- ②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전제로 한다.
- ③ 재조합 운반체는 특정 유전자가 세포에 이식될 수 있도록 해당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제한 효소는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이용되며, DNA의 특정 위치의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 ⑤ 재조합된 유전자 운반체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으면 재분화 배지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8. 아그로박테리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에 근두암종을 유발하는 토양성 세균이다.
- ②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는 식물 세포의 DNA 구조와 구별되는 DNA 구조를 지니고 있다.
- ③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옥토파인이 생성되면 아그로박테리아는 이를 이용하여 질소를 공급받는다.
- ④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숙주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든다.
- ⑤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에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물 세포에 이식하면 이 병성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

19.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신제품 개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육종하려는 식물체가 아닌 다른 식물체의 DNA에서 유용한 DNA 조각을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 ② B: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중 일부를 절단하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그 부위에 외래 유용 유전자를 결합시킨다.
- ③ C: 식물 세포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된다.
- ④ D: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식물 세포를 선발한 후 배지에서 재분화시켜 완전한 식물체를 만들어 낸다.
- ⑤ E: 안정성 및 상품성이 인정된 개체를 선발하여 종자를 증식한다.

20. ㉠과 <보기>의 a, b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외래 유전자를 텅스텐이나 금 분말 등의 미세한 금속으로 코팅한 후 식물 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금속 입자와 함께 외래 유전자가 식물체 핵 내로 이동하여 염색체에 삽입되며, 세포 재분화 과정을 거쳐 형질이 전환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금속 코팅을 통해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바이러스를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성숙한 식물체라도 한 번의 감염에 의해 대부분의 세포로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및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외래 유전자가 식물 유전체 내로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종자를 통한 다음 세대로의 유전은 기대할 수 없다.

- ① ㉠은 ㉡와 달리 한 번에 한 종류의 외래 유전자만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겠군.
- ② ㉡는 ㉠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운반체에 재조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은 ㉢와 달리 성숙한 식물체에 외래 유전자를 바로 도입할 수 없겠군.
- ④ ㉠과 ㉢는 모두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식물의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방법이로군.
- ⑤ ㉢는 ㉠, ㉡와 달리 식물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21. ㉠의 상황이 발생 가능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발 배지에 항생제가 충분히 함유되지 않은 경우
- ②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발현된 반면 외래 유용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은 경우
- ③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세포가 선발 배지에서 사멸하지 않는 경우
- ④ 외래 유용 유전자와, 그것과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형질 전환 과정에서 동시에 이식한 경우
- ⑤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식물 세포는 살아남았으나 항생제에 의해 아그로박테리아는 사멸한 경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가 세 번째 국회 의원 출마를 위해 다시 채식을 시작한다. 가족들은 국회 의원에 출마할 때마다 채식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친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나 미워하던 한 세계가 머지않아 붕괴하리라는 희미한 예감의 공포 앞에, 오로지 떨고 있었던 것이다. 체면 불구하고 부친이 출마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인 듯하다. 그 멸망이 상말로 시계 무엇처럼 점차 느껴져서, 설령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재출마해야 하는 그런 기우가 설마 부친에게 눈곱만큼이나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부친의 유일한 이해자는 숙당(淑堂) 조문제(趙文濟) 선생이었다. 조 선생은 중학교 한문 선생으로, 두루미처럼 버쩍 마른 모습으로 시의 언덕바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의 말을 빌려 보면, 부친의 망발(출마)은 단지 젊었을 때 글깨나 좀 읽었다는 탓일 따름이고, 모든 난점은 '흐르는 세월'이 심판해 준다는 것이다.

세월도 세월이러니와 선량*에 대한 부친의 이런 엉뚱한 꿈이라든가 이를테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채식' 같은 기묘한 방법은, 지금 곰곰 생각해 보니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다니엘서」에서부터 그 연유가 비롯한 성싶다.

[채식]에 관한 것뿐 아니라 흥흥한 난세의 여러 조짐에 대해 그 책은 괴상한 꿈 얘기라든가 기괴한 짐승들을 무수히 등장시켜 공갈을 치고 있는데 '그 이[齒]는 철(鐵)이요, 발톱은 놋[銅]이며,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라는 끔찍한 구절까지 있는 것이다. 학대받는 어느 민족의 이중 삼중의 설움의 메시지다. 하지만 부친이 정말 「다니엘서」를 독파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부친은 홀로 무언가 유일한 것을 믿고 있는 듯하기는 했으나, 외할머니나 모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발 때문에 평생 절이나 교회 문턱을 피했고, 어쩌다 집 안에 종교적인 물건 - 이를테면 부적이라든가 찬송, 성경책이라든가 지등(紙燈) 따위가 보이더라도 하면 부리나케 그것을 어디엔가 감추어 버리곤 했으므로, 설마 당신이 방에 몰래 숨어서 '다니엘'을 읽어 치웠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것과 꼭 같은 어이없는 절규가, 허기와 오기와 무청중에 지친 부친의 유세장에서 번번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들었던 것이다.

"나를 사자 아가리에 처넣어 보시오! 펄펄 끓는 불 속에 나를 콧 던져 보시오! ㉠내한테 어디 평생 풀만을 먹여 보시오! 끄떡도 안 할 것이요, 나는. 여러분! ……"

그렇다. 얼음이다. 만상이 타는 듯한 열화에 기갈 들러 오직 한 개의 통풍 구멍만을 찾아 허덕이는 여름 대낮 같은 때 홀로 자전거 등받이에 서늘한 수정과 같은 거창한 물건을 싣고 달리면서 부친의 꿈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결정체 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나 출마할란다……" 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의 그 계면적은 웃음, 우는 듯한 눈, 경악에 찬 가족들의 힐난의 시선에 이윽고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던 입술이 그것을 증명한다. 부친은 별식으로 모처럼 놓인 도미구이 접시를 한 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갔다. 그것이 신호였다. 누이와 나는, 4년마다 오는 부친의 그 구닥다리 같은 흥역을 또 치르게 되나 부다 하고, 부지중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서광삼 무표'니 '서광삼 3표'니 하는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의 조석 간의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선거 소동이 끝날 때마다 전 시의 오욕에 찬 익살맞은 조롱을 우리 집 위에만 폭삭 뒤집어씌우고도, 진실로 늙음하고 의연히 고고해서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해 보이는 부친의 배짱에 있었다. ㉠어쩐지 부친은 봄장마가 깨진 아스팔트 틈서리의 흙탕물을 튀기는 을씨년스런 한밤중에도 청명한 구름 속을 혼자 걷고 있는 듯했으며, 고독감에 몸을 떨며 내가 뒷간에 홀로 움치고 앉아 있을 때에도 그는 갓 벌어진 무슨 커다란 꽃봉오리 속에 의적이 따리를 틀고 있는 듯했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합동 유세장에서 친구 최 씨를 만나게 되고, 최 씨는 유세장에서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일을 빌미로 난동을 부린다.

분명치는 않아도, 부친이 채식을 그만둔 것은 그 이후부터다. 돌아오는 길에 부친은 가장 그럴싸하게 당신의 얼굴이 크게 찍힌 선거 벽보를 북 찢어 구겨서 잡담 제하고 그것을 길가에 던져 버렸는데, 무슨 변화와 동요가 부친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식을 폐하자 기뻐 날뛰던 것은 물론 그 **친척 참모들**이다.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자미 같은 것이 상 위에 올라오면 그것은 깜짝할 새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계면쩍다기보다 더러운 광경이었다. 부친은 글썽글썽해진 눈으로 가족들의 그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께 속이 꼬리꼬리하다……는 등 하는 친척들의 그 파렴치. 잘 씹어서…… 천천히…… 하고 주의를 소근거리는 **모친의 낭만.** 누이의 부어터진 얼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친은 광 속에 자전거를 처박아 둔 채 운신을 안 했다.

얼음 운반은 물론 내가 대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친은 62세였다. 보름 남짓을 앞에 둔 선거일이 빨리빨리 지나갔다.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그동안에 단 하루, 부친은 밖을 나갔을 뿐이다.

㉡“너 나하고 좀 나가자”고 부친이 말했을 때, 또 발작이 시작되나 부다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자 부친은 그만두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찾아간 곳은, 시가에서도 훨씬 떨어진 변두리 언덕 뒤에 숨듯이 하고 텅그마니 서 있던 도살장이었다. 그 일대는 분지처럼 지대가 낮아서, 잡초와 잡석과 황토가 작은 벌판을 이루고 개흙 바람에 눕고 있었으며, 잿빛의 긴 콘크리트 담으로 도수장*은 네모지게, 철통같이 에워싸여 있었다. 그 무렵 부친의 심경에 도사리고 있던 민족과 시국에 대한 비전이 겨우 이 정도의 황량한 풍경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올빼미 눈 같은 동그란 두 개의 창문 외에는, 감기 든 코처럼 사방이 막힌 도수장 건물에서 부친은 도대체 무엇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일까. ‘서광삼 기호 3번’의 플래카드 광목을 품에서 꺼내더니, 부친은 그것을 어깨에 두르고 건물로 다가갔다. 부친은 문을 두들겼다. 정문의 빗장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주인을 찾는다고 부친이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가 말했다.

부친은 절을 하고, 무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열변을 토하는 부친** 앞에서 광 하고 철문은 닫혀 버렸다…….

㉢언덕마지로 돌아오자 부친은 잡초를 한 줌 훑어서 입에 넣고 그것을 질경질경 씹으면서, 무연히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긴 하되 부친으로서, **정육점의 고기를 거덜 내는** 그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비결은 거기서 모든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도수장의 주인**을 구워삶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한 식경이 지난 뒤에 부친은 다시 담 밑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두들겼으나, 이번에는 열리는가 하자 문은 닫혀 버렸다. 부친은 두말 않고 돌아서서 나더러 가자는 눈짓을 했다.

- 이제하, 「초식」

***선량**: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 국회의원 별칭.

***도수장**: 고기를 얻기 위하여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을 잡아 죽이는 곳. 도살장.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긍정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의 유일한 이해자인 ‘숙당 조문제 선생’은 아버지의 출마를 글에 대한 무지의 소치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 ③ ‘나’는 아버지를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여긴다.
- ④ ‘나’는 외할머니와 모친 사이에 잠재된 종교적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연민하고 있다.
- ⑤ ‘나’는 아버지의 낙선이라는 결과보다는 낙선 뒤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배짱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유권자들의 연민을 이끌어 내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드러난다.
- ② ㉡: 선거 결과에 대한 아버지의 절망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③ ㉢: 친척들과 가족의 행위에 대한 ‘나’의 연민이 드러난다.
- ④ ㉡: 아버지의 현실 도피적 태도에 대한 ‘나’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 ⑤ ㉢: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24. **채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의 ‘채식’은 국회 의원 출마의 신호이다.
- ② 아버지의 ‘채식’은 자신의 꿈의 실현과 관계한다.
- ③ 아버지의 ‘채식’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이다.
- ④ 아버지의 ‘채식’은 ‘나’에게 성경에 연원을 둔 기묘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 ⑤ 아버지의 ‘채식’은 흉흉한 난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탈속 의지의 표출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초식」은 폭력과 비순수로 표상화된 '육식'의 세계에 맞서려는 개인의 투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초식」에서는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낯고 부조리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상실한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초식」의 '아버지'가 출마할 때마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한 섭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를 오랫동안 구울해 온 기존의 삶의 방식과 관습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육식의 세계에 대한 맞섬의 한 방식으로 채택한 개인의 특정 행위가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① 아버지가 '도미구이 접시를 한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가는 것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꿔 보려는 각오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이 아버지의 선거 결과를 조롱하고 있는 것에서 세계와 맞서려는 개인의 특정 행위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버지가 채식을 중단하자 '친척 참모들이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자미 같은 것' 들을 왕성하게 즐기는 것에서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도수장의 주인이 '열변을 토하는 부친'을 외면한 것에서 세계의 변화를 부정하는 인물의 형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아버지가 '정육점의 고기를 거덜 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수장의 주인과 공모하려는 것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을 접고 도수장 주인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 함을 엿볼 수 있겠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고용,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 아니라 경상 수지와 같은 대외 거시 경제 변수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이때 경상 수지란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와,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하며, 지급한 외화보다 벌어들인 외화가 많은 경우를 경상 수지 흑자, 적은 경우를 경상 수지 적자라 부른다.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은 국민 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 소득*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외 균형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 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거래의 규모가 커지면,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국내 화폐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 상태가 경기 불황에 경상 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라면 재정 정책만으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불균형은 그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는 환율 정책을 들 수 있다. 불황에 경상 수지 적자가 수반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환율 인상 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과 순수출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대내외 균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다. 재정 정책은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지출 조정 정책이다. 반면에 환율 정책은 ㉣총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전환 정책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인상될 경우 가계, 기업, 정부 등 국내 경제 주체들은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리므로 총지출 규모의 변화 없이도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지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는 환율 정책 이외에도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등이 있다.

*완전 고용 국민 소득: 한 나라에 존재하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생산 활동에 투입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소득.

*총수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 등으로 사려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

(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의 금 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다. 이를 통해 ㉥제1·2차 세계 대전 사이의 변동 환율제에서 벌어졌던 각국의 ㉦경쟁적 평가 절하와 이로 인한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반면 일시적·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함으

로써,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 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㉔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 했다.

㉔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금 본위제*하에서는 고정 환율을 통한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으므로, 경상 수지 불균형은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했다. 따라서 금 본위제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상 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만큼 통화 또는 금이 유출되므로 국내 경제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상품 및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값싼 임금과 원자재를 기반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며 그 결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어 경상 수지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반대로 경상 수지 흑자국의 경우 그만큼 통화량이 증대되어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곧 경쟁력의 저하로 귀결된다. 즉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게 되어 경상 수지 흑자가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경상 수지에 따라 국내 통화량과 국내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㉔금 본위제의 고정 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을 연계시켰던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극히 비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 질서이다.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고안된 국제 금융 질서는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다.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억제시킨 근본적 동기는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데 있었다.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거시 경제 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세, 인플레이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경우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이 원만히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자본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 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 대규모 자본의 빈번한 이동은 환율 체제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각국의 경상 수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국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㉔고정 환율제와 독자적인 통화 정책,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브레턴우즈 체제에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킨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다.

*온스(oz): 무게의 단위. 금 1온스는 약 31.1035g.

*태환: 지폐를 정화(正貨)와 바꿈. 또는 그런 일.

*금 본위제: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통화의 가치를 재는 제도.

2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 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상 수지 균형이 달성되면,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외 균형이 모두 달성된다.
- ②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적 재정 정책은 국내 이자율 상승을 통해 국외로의 자본 유출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③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환율 변화를 통해 순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수입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요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27. (나)의 ㉑~㉔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서는 ㉒와 같이 환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㉒와 같이 환율이 조정될 수 있었다.
- ② ㉒에서는 ㉒와 달리 각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여 국제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 ③ ㉒에서는 ㉑와 달리 각국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었다.
- ④ ㉒에서는 ㉒와 달리 각국의 경상 수지 불균형은 국내 가격 변동에 의해 조정되었다.
- ⑤ ㉑와 ㉒는 모두 구조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할 수 있었다.

28. (가)와 (나)를 참고할 때, ㉑과 ㉒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과 ㉒은 모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② ㉑과 ㉒은 모두 국내 경제 정책에 의해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③ ㉑은 재정 정책만 사용할 경우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상충되기 때문에, ㉒은 고정 환율제에서는 경상 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④ ㉑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가 순수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㉒은 경상 수지 적자가 국내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⑤ ㉑은 정책 수단이 대내 목표와 대외 목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㉒은 대내 경제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이 대외 경제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29. (나)를 참고할 때, 연계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국의 경제 정책적 자유주의와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가 연계되어 있었다.
- ②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적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이 연계되어 있었다.
- ③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여, 고정 환율 유지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 ④ 거시 경제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 ⑤ 각국의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30.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독자적 통화 정책과 환율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라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국제 이자율에 비해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기존의 확장적 통화 정책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즉 정부는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거나 환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에 반대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①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해야 환율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환율 운용을 모두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 ③ 개방 경제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이자율 변화 효과가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화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 ④ 고정 환율제하에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통화 정책은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 ⑤ 통화 정책이 유발한 환율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국내 이자율의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31.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화로 표시된 순수출액의 크기를
- ② ㉡: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 ③ ㉢: 국내 생산 재화와 수입재에 대한 지출 비율에
- ④ ㉣: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각국의 환율 인하 경쟁과
- ⑤ ㉤: 각국이 국내 경제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우유 배달을 하는 만석은 폐지를 줍던 송 씨와 우연한 사건으로 알게 되면서 송 씨를 좋아하게 되고 그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보살피며 지낸다. 한편 주차장 관리인인 장군봉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보살피며 힘겹게 살아간다.

(가) 동사무소 (낮)

송 씨를 끌고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만석.

송 씨: 괜찮다니까요.

만석: ㉠참 말 많네. 따라만 오라니까.

송 씨의 손목을 잡고 연아 앞으로 다가가는 만석.

연아: (벌떡 일어서는) 할아버지! 여긴 어떤 일이세요?

만석: 접때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돈 나온다 그랬지?

연아: 독거노인 보상 급여요?

만석: 얼마나 나와?

연아: (송 씨를 흘끗흘끗) 그거야 형편에 따라 다르죠. 자식이 있고 없고.....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송 씨: (쳐다보는 눈길이 무안하다.) 됐어요. 전 괜찮아요. (못 참고 나간다.)

만석: (불잡고) 그놈의 괜찮다는 소리.....

만석, 송 씨의 손을 잡은 채.....

만석: (연아에게) 아 대충.....!!

사람들: (깜짝)

연아: (놀라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올걸요.

만석: 뭐! 얼마!

연아: 10만에서..... 15만.....

만석: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보일러 기름값도 안 되는데.....

송 씨: (멍) 그 많은 돈을..... 준다구요?

연아: 네.....!

송 씨: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인데.....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아: (따라 인사하며) 제가 드리는 게 아니지요.....

진심으로 감사한 듯, 공손히 또 아주 깊이 절을 한다.
동사무소 직원들 모두에게 하듯,

송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아: …….

깊이 허리를 숙이는 송 씨를 따라 연아도 얼떨결에 절을 한다.
영문 모르고 덩달아 인사를 하는 직원들.

(경과)

연아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인 동사무소 직원들. 한마디씩 거든다.

직원들: ㉠“최대한 빨리 신청해 봐.” “독거노인 자금 혜택 자료 다 뽑아 냈지?”

연아: 할머니, 일단 주민 등록증 주세요.

송 씨: …… (머뭇)

연아: 주민 등록증요?

송 씨: …… 그게……. 없는데…….

연아: (놀라 보며) 뉘……? 아예 없으세요?

송 씨: (고개 떨구는)

송 씨, 대답을 못 하고 발끝만 바라본다.

만석: (끼어들고) 만들어. 당장 만들면…… 그럼 되잖아? 안 그래……?

송 씨: ㉡“그렇게 어거지 부리지 말아요.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랏일 하는 바쁜 분들인데…….

직원: 헛, 나랏일요……. 나랏일이래……. 아하하하……. 연아 씨, 급행으로 해 드려.

만석: 거참 시원시원하게 일들 잘하는구먼…….

연아: 그럼 일단 등록 신청부터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 씨: 송 씨요.

연아: 그다음은요?

송 씨: …… 그냥…… 송……. 그게……. (머뭇)

연아: …….

이때 만석 소리.

만석: 이뿐이야.

연아: 예?

만석: 이뿐이라니까…… 송이뿐!

연아: (송 씨에게) 진짜요?

만석: (버럭!)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송이뿐이라구.

송이뿐!

연아: (이름을 적는데……)

만석: 아니 이쁘다 할 때 이쁜 말고…… 송이…… 뿐이다 할 때 이쁜. 그래…… 빨리 써……!

연아, 얼떨결에 빈칸을 채우고…….

만석, 송 씨를 보며 눈을 찡긋…….

(나) 군봉의 과거

1. 가족사진을 찍고 있는 군봉과 가족들.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영옥.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은 군봉, 군봉 처, 장남, 차남, 막내딸 영옥이 서 있다. 행복한 모습.

장남: 노후 걱정은 마세요. 저랑 상옥이랑 아들이 돌씩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영옥: 히히…… 나도…… 시집 안 가고 아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차남: 두 분은 꼭 제가 모시고 살 겁니다.

2. 군봉 부부와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째, 영옥과 식사를 하고 있다.

첫째: 직장도 너무 멀고 해서…… 결혼하면 분가할 생각입니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며느리: ㉢자주 찾아뵙게요.

군봉(소리): 그렇게 큰아들이 떠났다.

3. 군봉 부부와 마주하고 앉은 둘째 아들 내외와 영옥.

둘째: ㉣죄송해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해서…… 원래 장남인 형님이 모시는 게 맞잖아요.

군봉(소리): 한 번도 우리를 모셔 달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4. 방 안에 막내딸 영옥과 마주 앉은 군봉 부부. 건너편에 영옥 남편 될 남자가 앉아 있다.

군봉: (못마땅하게 남자를 보며) 뭐가 급해서 꼭 그렇게 서둘러 결혼해야겠니?

영옥: 죄송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자주 찾아뵙게요.

군봉(소리):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우린 그저 말만으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5. 밥상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고 있는 군봉 부부.

군봉(소리): 우리는 이제 다시 부부다. 가족이었는데…….

군봉: 이제 당신과 나…… 다시 둘만 남았네.
- 강풀 원작·이만희 각본, 「그대를 사랑합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송 씨에 대한 만석의 애정 어린 행동이 드러나는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 ② (가)에서는 주민 등록증조차 없는 송 씨의 상황을 제시하여 인물의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③ (가)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송 씨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나)에서는 인물의 '소리'를 활용하여 군봉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는 가족사진 촬영 장면과 자녀들과의 대화 장면을 연속으로 제시하면서 군봉 부부만 남게 된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 감사를 표하는 상대에 대한 사람들의 우호적인 관심이 드러난다.
- ③ ㉢: 숨기고픈 자신의 처지를 들춰내는 상대에게 분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 의례적인 표현으로 인물이 대화 상대에게 가지는 부담감이 담겨 있다.
- ⑤ ㉤: 기존에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가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노인들이 자식들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 곤궁을 겪으면서도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애뜻함을 전하고자 노력하면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는 노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전한다.

- ① '보상 급여'에 대해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이라고 반응하는 송 씨를 통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문제를 알 수 있군.
- ② 노후 걱정을 말라던 말과는 달리 하나씩 군봉 부부의 곁을 떠나는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점점 소외되는 노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주저하는 송 씨를 통해 그녀가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송 씨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아에게 보인 만석의 반응을 통해 송 씨에게 품은 애뜻한 마음을 들켜자 화가 난 만석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⑤ 택시 기사를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군봉이 가족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던 모습과 달리 '다시 둘만 남았'다고 하는 것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알 수 있군.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문법 요소를 동작상이라 한다. 어떤 사건이 시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과 완료되었음을 보여 주는 완료상이 대표적인 동작상이다. 국어에서 동작상은 주로 보조 용언 구성을 통해 나타난다. 예컨대 진행상을 나타내는 데에는 주로 '-고 있다'를 사용하고 완료상을 나타내는 데에는 주로 '-어/-아 있다'를 사용한다.

- (㉠) 그는 밥을 먹고 있다.
- (㉡) 꽃이 피어 있었다.
- (㉢) *그는 길을 걸어 있다. (*는 비문 표시)

(㉠)은 '그가 밥을 먹'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문장이고, (㉡)은 '꽃이 피' 사건이 완료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문장으로서 각각 진행상과 완료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왜 '걷다'에는 '-어 있다'를 붙여 (㉢)과 같은 완료상 문장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동작상과 관련된 동사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이를 동사의 상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동사의 상적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순간성]과 [완성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요소들은 '+'로써 해당 특성이 있음이 표시되고 '-'로써 해당 특성이 없음이 표시된다. 곧 동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순간성]과 [-순간성]으로 나뉘고, 동작이 다 끝나야 의미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성성]과 [-완성성]으로 나뉜다. 예컨대 '(공을) 차다'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순간성]을 가지고 있고, '(꽃이) 피다'는 동작이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순간성]을 가지고 있다. 또 '(꽃이) 피다'는 동작이 끝나야 해당 사건이 성립되므로 [+완성성]을 가지고 있고, '(길을) 걷다'는 이론적으로 동작이 끝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순간성]을 가진 동사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완성성]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순간성, -완성성]을 가진 동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동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과정 동사 [-순간성, -완성성]: 걷다, (㉠) ...
- 완성 동사 [-순간성, +완성성]: 피다, (㉡) ...
- 순간 동사 [+순간성, +완성성]: 차다, (㉢) ...

보조 용언에 의해 표시되는 동작상은 동사의 상적 특성과 잘 어울려야 한다. 가령 과정 동사 '걷다'와 같이 [-완성

성]을 가진 동사에는 '-어 있다'가 붙지 못하여 (㉢)이 비문이 된다. [+완성성]을 가진 동사라고 해서 완료상을 나타내는 '-어 있다'가 항상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 (㉣) 순희가 공원을 걷고 있다.
- (㉤) 동생이 물을 끓이고 있다.
- (㉥) 명희가 아기를 업고 있다.

(㉣)의 '걷다'는 과정 동사이고 (㉤)의 '끓이다'는 완성 동사이다. 이 두 부류의 동사들은 [-순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 있다'가 결합하면 진행상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의 '업다'는 순간 동사이다. 따라서 '-고 있다'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동작이 완료된 결과인 '업은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상 문장으로 해석한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은 시간의 폭이 너무 짧아서 그 시간 동안 그 동작이 진행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동작이 천천히 일어나서 시간의 폭이 충분히 넓어지는 경우에는 진행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업다'가 순간 동사가 아니라 완성 동사로 쓰이는 것이다.

동사의 상적 특성만으로 모든 동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 부사어의 의미나 쓰임에 따라 동사의 상적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의 상적 특성은 동작상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3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단어들을 ㉠~㉣에 넣는 학습 활동을 할 때, 그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불이) 불다	(글을) 읽다	(집을) 짓다
---------	---------	---------

	㉠	㉡	㉢
①	(집을) 짓다	(글을) 읽다	(집을) 짓다
②	(집을) 짓다	(불이) 불다	(글을) 읽다
③	(글을) 읽다	(집을) 짓다	(불이) 불다
④	(글을) 읽다	(불이) 불다	(집을) 짓다
⑤	(불이) 불다	(집을) 짓다	(글을) 읽다

39.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해당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에서 서술격 조사는 앞에 결합하는 체언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

-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라
예) 宅은 지비라 (택(宅)은 집이다)
-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나 반모음 'ㅣ'일 때: Ø라
예) 牛頭는 쇠 머리라 (우두(牛頭)는 소의 머리이다)
-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 반모음 'ㅣ'가 아닌 모음일 때: ㅣ라
예) 幻은 꼭되라 (환(幻)은 꼭도(꼭두각시)이다)

—<보기 2>—

樓는 ㉠
(누(樓)는 다락이다)

間은 ㉡
(간(間)은 스시(사이)이다)

生佛은 사라 겨신 ㉣
(생불(生佛)은 살아 계신 부처이다)

	㉠	㉡	㉣
①	다라기라	스시라	부테시니라
②	다락ㅣ라	스시라	부터이시니라
③	다라기라	스시라	부테이시니라
④	다락ㅣ라	스시이라	부터이시니라
⑤	다라기라	스시이라	부테시니라

40.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단어의 쌍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과일'과 '포도'의 관계처럼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과일'을 상의어라고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포도'를 하의어라고 한다. 한편 전체 부분 관계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가령, '까치'와 '부리'의 관계는 전체 부분 관계로 '까치'는 전체어, '부리'는 부분어라고 한다. 이 두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의어는 상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분어는 전체어라고 할 수 없다는 특징을 활용한다. 즉 '포도'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리'는 '까치'라고 할 수 없다.

—<보기 2>—

- ㉠ 동물 - 포유류
- ㉡ 장미 - 백장미
- ㉢ 계절 - 여름
- ㉣ 자동차 - 엔진
- ㉤ 핑 - 장끼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41~42] (가)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계획서의 일부이고, (나)는 (가)에 따라 만든 블로그에 게시된 글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블로그의 목적: 나의 요리 생활을 사람들과 공유한다.
- 주된 수용자 집단: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 세부 계획

㉠ 조리 과정과 완성된 요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수용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한다.

㉡ 요리 이름을 블로그 글의 제목으로 제시하되 제목의 글자 크기와 모양을 본문과 달리하여 잘 드러나게 한다.

㉢ 조리법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의 장점이거나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시한다.

㉣ 수용자가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다른 요리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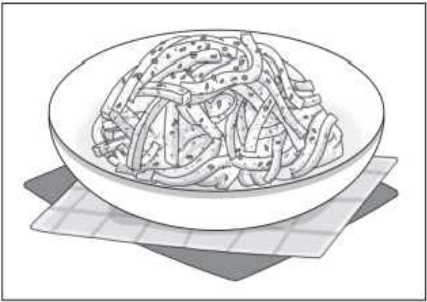
㉤ 요리에 얽힌 일화를 제시하여 수용자의 흥미를 높인다.

(나)

블로그 152개의 글 목록 열기

무나물 || 맛있는 반찬

2020. 11. 1. 15:43 URL 복사 +이웃 추가




이맘때 무는 시원하고 살짝 달콤해서 정말 좋아요.
게다가 소화에도움이 되는 효소도 들어 있어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반찬 재료로는 제격이죠.
잘 만든 무나물 한 접시면
순식간에 밥 한 그릇 푹딱!
식사가 더 즐거워져요. ♪

무나물 재료

무 1/3개, 식용유 2큰술, 멸치 다시마 육수 1/3컵,
다진 파 1/2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생강가루 1/2작은술,
소금 1작은술, 들기름 1큰술, 깨소금 1/2큰술

무는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착착~ 채를 썰어 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주고
채 썬 무를 넣고 살살 볶다가
멸치 다시마 육수 넣은 뒤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2~3분 정도 익게 놓아주세요.
무가 숨이 좀 죽었다 싶으면
다진 파, 다진 마늘, 생강가루, 소금 넣고 잠깐만 볶다가
마무리로 들기름이랑 깨소금 솔솔 뿌려 주면
맛있는 무나물 완성!

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밥에 비벼 먹으면 맛이 최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만드는 과정 동영상 보기 ↑↑

[다른 무 요리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41.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블로그의 표현은 말하기의 표현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수용자는 흡사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조사나 어미의 생략, ‘해요체’의 사용, 접속 조사 ‘이랑/랑’의 사용,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 등은 말하기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표현 방식의 예이다. 또한 말할 때 목소리에 묻어나는 느낌을 블로그에서는 기호나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말할 때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문장을 적당히 끊어서 발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로그에서는 끊어 발화하기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 시각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① ‘들기름이랑 깨소금’을 ‘들기름과 깨소금’로 바꾸면 말하기의 표현에 더 가까워지겠군.
- ② ‘즐거워져요.’ 옆의 ‘♪’와 ‘착착’ 옆의 ‘~’는 목소리에 묻어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③ ‘제격이다’가 아니라 ‘제격이죠’로 표현되어서 수용자는 블로그를 만든 이가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받겠군.
- ④ ‘푹딱’이나 ‘솔솔’과 같은 표현이 많아지면 블로그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말하기의 표현과 더 많이 비슷해지겠군.
- ⑤ 한 문장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두서너 줄로 배치한 것은 끊어 발화하기처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겠군.

[43~45] (가)는 종이 신문의 한 면이고, (나)는 (가) 신문의 인터넷판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3면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사회 제2571호 ○○신문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북극·시베리아 이상 고온에 동아시아 비 세례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장마와 폭우는 북극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상 온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극과 시베리아 일대의 기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눈과 빙하가 녹아 지표면이 태양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따뜻한 공기가 정체돼 동에서 서로 움직이던 찬 기류가 남북으로 움직이며 동아시아 쪽으로 밀려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나비 효과처럼,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이상 폭우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 기상학과 □□교수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찬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온 탓에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해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폭우뿐만 아니라 이상 한파 등 다양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기자 seo@x x x.co.kr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인권위, 이번 달 중 학습 지도안 배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학습 지도안과 교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학습 지도안과 교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거액 기부

배우 ◇◇◇ 씨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 원을 구호 관련 단체에 쾌척한 사실 ...

2020. 8. 4. 20:30

(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회 최신 기사 교육 노동 사건 사고

화재 구조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 인정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큰 화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의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

2020. 8. 4. 21:06

◇◇◇, 거액 기부

배우 ◇◇◇ 씨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 원을 구호 관련 단체에 쾌척한 사실 ...

2020. 8. 4. 20:30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

2020. 8. 4. 20:23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국가 인권 위원회(인권위)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

2020. 8. 4. 20:15

4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기사가 게재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표제와 부제로 내용을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시각 자료의 의미가 글의 의미와 결부되어 해석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매체 특성상 시간 순서에 따라 기사를 정렬하여 게시하기 쉽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기사의 본문을 일부만 노출한 상태에서 독자가 자세히 읽고 싶은 기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신문에는 편집자와 기자의 관점이 반영된다. 그중 편집자의 관점은 주로 기사의 선택과 배열에 의해 지면에 구현된다. 여기서 기사의 선택과 배열이라 함은 편집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지면에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기자의 관점 또한 신문에 반영된다.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쓸 것인지, 누구와 인터뷰할 것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등을 선택한다.

- ① 편집자가 달라진다면 (가)에는 다른 기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군.
- ② 표제에서 '폭우' 대신 '물 폭탄'을 사용한 것은 편집자가 기사의 선택과 배열을 행한 결과이겠군.
- ③ 폭우가 온 사실 자체보다 폭우의 원인을 탐색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은 기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택한 결과이겠군.
- ④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에 대한 기사와 거액 기부에 대한 기사의 배열 순서에도 편집자의 관점이 반영되었겠군.
- ⑤ 기상청 관계자 및 기상학과 교수와의 인터뷰가 기사에 포함된 것은 기자의 관점이 신문에 반영된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화면에 각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들로 이루어진 목록이 나타난다. 독자는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면 되니 참으로 편리하다. 그러나 검색 결과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 서로 비슷한 내용일 때도 많은데, 마치 기사들이 읽히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기사 목록은 수시로 바뀐다.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언론사가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리기도 한다. 오탈자나 비문이 포함된 기사들도 간혹 발견된다. '속보'라고 이름이 붙은 기사 중에는 표제만 있고 본문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 독자에게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으로 인해, 내용과 표현이 충실한 기사만을 내보내는 선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 ① (나)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 화면에는 공통된 특징이 없군.
- ② (나)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 화면처럼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 ③ (나)에는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린 흔적이 남아 있군.
- ④ (나)에 표제만 있고 본문이 없는 기사가 향후에도 올라오지 않으려면 '선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겠군.
- ⑤ (나)에서 기사 본문으로 이동했을 때 오탈자가 보이더라도 이를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는 없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